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07

다름을 마주하는 용기: 데이터주의 시대,
다양성과 어울림의 의미를 묻다

신은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7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소고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름을 마주하는 용기:
데이터주의 시대,
다양성과 어울림의 의미를 묻다

신은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양성은 다름이 얼마나 공존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인종, 젠더, 종교, 성적 지향,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 장애, 연령, 정치적 성향... 나와 너를 구분하는,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성이 높은 사회는 여러 기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 다양성이 높은 공동체라면 구성원은 어떻게 ‘우리’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토록 나와 다른 너인데, 우리가 어울려 공존할 수 있을까?

다움에 기반한 기계적 연대를 이루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다름에 바탕한 유기적 연대로의 진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는 낯설음이 주는 어색함을 피할 수 있다.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좋아하는 것을 편식하는 것은 쉽다. 기계적 연대 안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안분지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주는 안락함 덕분이었다. 나와 다른 네가 필요하긴 하지만, 함께 어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름은 긴장을 동반한다. 고로 불편할 수 있다.

에코 챔버(echo chamber)¹⁾와 필터 버블(filter bubble)²⁾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유상종, 초록 동색으로 표현되는 동종 선호 경향은 인류의 역사에 항상 존재했다. 나 밖의 세계와 내 안의 재해석된 세계 사이의 먼 거리는 스스로가 만끽하는 안정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를 때, ‘자기 확신’이라는 달콤함을 최고로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진 세계관과 믿음이 옳다는 확신은 절대적 안정감을 동반한다.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불편하다. 그 의견의 거리를 좁히려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동질적인 사람들 속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더욱이 디지털 시대는 이런 좁은 세계에서 사는 것을 편리하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락함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닫힌 세계에서 우리는 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잃는다.

-
- 1) 자신의 성향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정보나 의견만을 접하는 환경
 - 2) 개별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알고리즘 편향을 일컫는 용어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것은 내가 가진 편견의 허울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양함을 마주하며 가지는 성찰의 기회는 우리의 성장에 주요한 동력이 된다. 다름이 주는 불편함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한다. 일차적으로 내가 가진 편견을 깨 나가는 것은 개인적 성장이다. 자원과 권력의 분배 과정에서 배제되고 박탈당하는 사람이 적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인류의 진보다.

밀(Mill)은 자유론(1859)의 서두에서 풍요로운 다양성이 인간의 성장에 기여하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³⁾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다양성에서 출발하는 것은 양자가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우리의 자유로움의 출발이자 발현인 까닭이다. 자유롭기에 우리는 다양하고, 다양하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다양성에 대처하는 유연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이 점차 고도로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하지만 다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파편화된다. 사회 속 다양한 그룹들 간의 간극이 넓어지고

3) Mill, J. S. (1998). *On liberty and other essay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서문의 Humboldt, W. (1792) 인용구: "The grand, leading principle... is the absolute and essential importance of human development in its richest diversity."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오늘날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듯, 이는 풀어내기 험난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

데이터에서 폐쇄성의 민낯을 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라틴어의 ‘주어진(given)’이라는 어원을 가진 데이터(data)는 분석을 위해서 모은 사실 혹은 값들의 집합이다. 전통적인 데이터는 고비용의 수집 계획, 정보 수합의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가장 적은 수의 데이터 값으로 모집단의 성격을 유추하기 위한 세밀한 샘플링이 필수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저장된다. 언제나 데이터를 갈망하던 인류는 디지털 공간이 도래하고, 분석 능력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상태로 강제 이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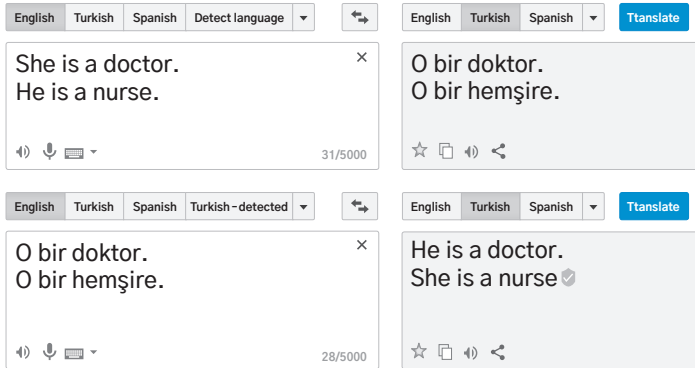
적극적 수집 과정이 필수였던 구(舊)데이터와는 달리 신(新)데이터는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모은 정보들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기록된 정보들이며 다양한 목적을 가진 수합 매체에 모아진 흔적들을 포괄한다. 국가나 기업 등 소수의 조직에 의해서 모아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모이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축적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양적으로 방대하다.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아울러 역사가 남긴 구(舊)데이터 역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 가능한 기록의 총체를 우리는 ‘데이터’라는 용어로 총칭하고 있다.

NEW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시도였던 것과 달리 가용 데이터의 폭발적 축적에 힘입어, 폭넓은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21세기 현재 우리가 열광하는 NEW AI는 이러한 데이터의 범람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결합되어 만든 찬란한 합작품이다.

데이터주의 시대의 우리는 데이터에 담긴 다양하지 못했던 역사를 지나라하게 발굴하고 있다. 무비판적 기계 학습은 데이터에 녹아 있는 과거 역사의 버리고 싶은 부분들까지 재생산한다. 숨어 있던 우리의 편견과 배제의 논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개인이 가진 생득적 범주들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 속에서 구별 짓기의 잣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2018 구글 자동 번역 결과



출처: Google Translation

위의 그림은 2018년의 구글 자동 번역 결과다. 영어 문장을 3인칭 대명사에 성별 구분이 없는 터키어로 자동 번역을 한다. 다시 이 문장들을 영어로 번역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의사다’와 ‘그 사람은 간호사다’라는 두 문장은 ‘그는 의사다.’와 ‘그녀는 간호사다.’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된다. 구글의 자동 번역기를 두 번 거치면 성별이 처음 출발 문장과 반대로 출력된다. 심지어 그녀는 간호사라는 번역에는 인증 마크까지 있다.

이는 알고리즘이 자동 번역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에 의사는 남성 인

칭 대명사와 간호사는 여성 인칭 대명사와 한 문장에 등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터키어뿐만 아니라 헝가리어 등 성별 구별이 없는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과학자·엔지니어와 CEO는 ‘그의 직업’이 되고 간호사와 제빵사는 ‘그녀의 직업’이 된다.⁴⁾

이러한 폐쇄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추천 구직 광고 역시 나의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면 추천되는 2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 직업 311개가 뜨는 반면, 남성으로 설정하면 1,816개의 광고가 추천된다.⁵⁾ 왜 여성으로 성별을 설정했을 때 1,505개의 광고가 사라질까? 기존 데이터에서 고액 연봉 직업에 남성이 많았던 까닭이다. 동시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고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된 플랫폼 시장의 광고비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⁶⁾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없는 新데이터 활용은 위험하다. 데이터는

-
- 4) Prates, M. O., Avelar, P. H., & Lamb, L. C. (2020). Assessing gender bias in machine translation: a case study with google translate. *Neural Computing and Applications*, 32(10), 6363-6381.
 - 5) Datta, A., Tschantz, M. C., & Datta, A. (2014). Automated experiments on ad privacy settings: A tale of opacity, choice, and discrimination. *arXiv preprint arXiv:1408.6491*.
 - 6) Lambrecht, A., & Tucker, C. (2019). Algorithmic bias? An empirical study of appar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display of STEM career ads. *Management science*, 65(7), 2966-2981.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적인 맥락을 떠나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정보사회에서 주요 동력이 되는 데이터는 인간 사회의 역사를 녹여 담고 있다. 사회적 산물인 데이터에는 기존의 편향과 배제, 불평등의 굴곡이 그대로 담겨 있다. 양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탈정치적인 것도 아니다. 新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 자동화된 편견을 돌아보다

경찰이 속도위반을 하며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외관으로 식별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이 적혀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는 경찰관에게 데이비드는 “저는 100% 남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자입니다.”라고 답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당시 캐나다 보험국은 25세 이하의 남성은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우편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보낸다. 그리고 그는 여성으로 성별이 바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 신분증으로 그는 한 달에 \$91의 보험료를 덜 낼 수 있었다. 이런 행위를 통해 그는 자신이 시스템을 이긴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LGBTQIA+ 권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사건은 과속 사건에 덧붙여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확장되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윤리적,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도의 빈틈을 활용한 것일까, 아니면 범죄일까?

지난 학기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교양 수업에서 활용했던 케이스다. 철학과에서부터 컴퓨터학과와 의예과 학생까지 55개 학과의 630명의 수강생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많은 학생들은 데이비드의 법적 책임이 제일 무겁다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로서 오판을 내린 의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소견서만 믿고 성별을 바꾸어 준 판사의 결정이 제일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다. 눈치 빠른 몇몇 학생들은 데이터과학 수업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를 고민하다 보험국의 차별적 보험료 적용도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왜 보험국은 남성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까? 많은 학생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회사에서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누적된 자동차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고, 20대 초반의 남성이 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괜찮을까? 본인이 선택한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실금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된다. 기존에 사고를 낸 경력이 많은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하라고 하면,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의 생득적 성별 때문에 그 운전자가 더 위험한 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나? 과거 다른 사람들이 만든 교통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는 데이비드에게 같은 조건의 여성에 비해서 한 달에 \$91의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은 공정한가?

이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를 제시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은 괜찮을까?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서 경비와 방역 요원으로 일하는 어떤 이는 5년 된 혼다로 통근을 하는데, 한 달에 \$190.69의 부담스러운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다.⁷⁾ 옆 동네에 사는 누군가는 3년 된 아우디를 타는데 한 달에 \$54.67의 보험료를 낸다. 운전 경력이 비슷한 운전자라도 거주지에 따라서 과거 사고 건수가 많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한다. 미국의 곳곳에서 지역 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의 거주자는 때로는 같은 조건에서 4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7) Angwin, J., Larson, J., Kirchner, L., & Mattu, S. (2017, Aril 5). Minority neighborhoods pay higher car insurance premiums than white areas with the same risk. *ProPublica*. <https://www.propublica.org>

왜 보험 회사는 열악한 운전 환경을 가진 동네의 주민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가? 왜 운전자의 사고 경력과 무관한 거주 지역의 평균 사고율에 따라서 더 비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사고 다발 지역이 되기까지는 거주민의 운전 미숙이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지역 도로의 관리 상태 혹은 도로 설비에 속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또한 그 지역의 사고율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의한 사고만 계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분석 수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 반의 수학 평균이 80점이라는 것은 나의 수학 점수가 80점이라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0.0024%라 할지라도 내게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진법의 세계이다. 자동차 1만 대 중에 두 대가 사고를 경험하니까 나는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그룹의 평균값을 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의 속성으로 오해하는 순간, 인권 침해가 시작된다. 남성이라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지역의 사는 사람들 모두가 거친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존의 차별적 통념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어 편견을 재

생산하고 불평등을 증폭하는 예는 자동차 보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강 보험 시스템, 주택 담보 대출 시스템, 복지 혜택 수혜 시스템, 범죄 예방 시스템, 아동 학대 방지 프로그램 등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다.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수업료는 왜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을까?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듯, 학생들의 수업료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많은 것을 배워 가는 학생에게는 더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하고, 집중을 별로 하지 않아서 10%만 듣고 가는 학생들은 10%의 수업료만 내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 평균적으로 초록 동네에 사는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으므로 그 동네 학생들에게 더 비싼 수업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작년의 수업에서 과량 학과 학생들의 점수가 높았으니까 그 학과 학생들에게는 비싼 수업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후불제로 많이 배워 가서 A를 받은 학생은 100% 수업료를 내고 D를 받은 학생은 50%의 수업료만 내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순간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타

인에게 책정되는 보험료가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에 대해 반감이 적었는데, 본인에게 부과되는 수업료의 경우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어떤 변수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전부터 행해진 관례라는 것은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적절하거나 타당한 데이터인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무조건 합리적인 결정인 것도 아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더 객관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눈먼 과학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더욱 혹독한 부가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 20세기 초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출범하면서 접근이 쉬운 가입자의 정보는 나이와 성별이었다. 가입자의 사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더 정교한 분석이라고 자신했을 터이다.

잘못 사용된 기술은 우리의 편견에 확성기를 달아 준다. 보험료 관련 두 사례는 과거의 편견에 무비판적으로 데이터의 갑옷을 입혀서 제도에 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데이터 분석 부작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내가 남성이라서 더 거친 운전을 한다고 오해받고 싶지 않고, 우리 동네에 사

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도 사고를 낼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은 불편하다. 범주에 기반한 차별의 논리가 폭력적인-그래서 공정하지 않은-이유는 내가 나의 데이터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 범주의 서사를 새로 쓰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새로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 파급력은 과거의 기계적 산업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앞서 언급된 구글 자동 번역의 경우, 2019년부터는 위의 실험을 해 보면 그녀를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구글은, 중성 대명사는 자동적으로 여성형으로 번역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물론 인증 마크도 사라졌다. 또한 2014년부터 유럽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운전자의 차에 센서를 달아서 본인의 운전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험금을 책정하는 서비스가 소개되었다. 누군가가 낼 사고의 확률은 본인의 운전 습관과 운전 경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전의 범주에 근거한 계산법보다 훨씬 반가운 일이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범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범주를 기반으로 누군가의 기회와 자유를 박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제의 장치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다. 획일적인 범주로 평가되고 재단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던 우리는 범람하는 데이터 속에서 자칫 새로운 덫에 빠질 수 있다. 거칠고 빠르게 쏟아지는 데이터 앞에서 우리는 비판적 검토 없이 쉽게 데이터 결정권을 기존의 관행과 존속하는 권위 집단에 넘겨준다.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범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카테고리인가에 대해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노이즈들도 함께 보인다. 연어(salmon)와 폐어(lungfish), 그리고 소(cow)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폐어와 소는 후두개(기관을 덮는 작은 피부 덮개)가 있지만, 연어는 후두개가 없다. 폐어의 심장은 연어보다 소처럼 구성되어 있고, 폐어는 물 밖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다. 폐어는 연어에 가까울까, 소에 가까울까? 실제로 소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⁸⁾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자, 생물계를 이해하는 전통적 계통발생학의 분류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⁹⁾

사람을 이해하는 분류법 역시 창조적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2004년 페이스북이 처음 선을 보였을 때, 두 가지의 젠더 선택지가 있었다. 남성 그리고 여성. 추가적으로 성별을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었지만 그 이외의 범주는 주어지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제한된 카테고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페이스북은 더 다양한 젠더 항목을 만들고 사용자들은 여성과 남성 외에도 56개에 달하는 성별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현재 페이스북은 이 자생적 카테고리에서 파생된 14개의 성별 카테고리와 함께 자유 기입란을 제공하고 있다. 과연 한 개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그 성별의 범주가 얼마나 큰 설명력을 가져야 하는가. 피부색에 따른 범주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누군가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

8) Gardiner, B. G., Janvier, P., Patterson, C., Forey, P. L., Greenwood, P. H., Miles, R. S., & Jefferies, R. P. S. (1979). The salmon, the lungfish and the cow: a reply. *Nature*, 277(5693), 175-176.

9) Sandvik, H. (2008). Tree thinking cannot be taken for granted: challenges for teaching phylogenetics. *Theory in Biosciences*, 127(1), 45-51.

우리는 긴 시간 통용되던 카테고리에 부여된 낡은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서 있다. 최소한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제 이런 배제와 편향의 메커니즘이 데이터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찾고자 한다면, 숨어 있는 사각지대에 배제된 그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범주의 붕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가 많아지면 평균값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정규분포를 그린다. 동시에 우리는 평균 밖의 많은 데이터 값들이 존재함도 알게 된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노이즈도 많아진다. 그 분산의 곡선 위에 내가 찍은 점 하나가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그 선을 이룬 슬하계 많은 다른 점들도 똑같은 열망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 유연함 없이는 다양성도 없다

다양성은 단순히 1/n의 지표를 맞추는 숫자놀이가 아니다.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은 숨겨지고 배제된 범주를 찾는 숨바꼭질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폐쇄성을 포착하게 해 준다. 다양성 들여다보기는 우리 사회의 포용력에 편향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기 검열의 도구이다. 다양성은 단순히 얼마나 다양한 성별·계층·인종이 사회 혹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삶의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포용력 있는 환경을 더 많은 개인에게 제공해 주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다양성은 그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준엄한 지표이다.

인류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를 거쳐 왔다. 폐쇄적인 범주에 속한 소수에 의해 자원 및 권력이 배분되는 것은 기존 사회의 오래된 작동 방식이었다. 우리는 피부색, 생득적 성별, 출신 계층에 따라서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접근 가능한 자원이 결정되는 사회를 살아왔

다. 2천 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필자와 독자가 누리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니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 글과 지식은 지극히 소수의 사회 구성원에게만 허락되던 자원이었다. 이러한 자원의 분배와 접근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인류의 진보이며, 성장의 역사이다.

동질성에 익숙하던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 따른다. 이질성에 기반한 개방 사회는 메타인지를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르므로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입 초기에 느끼는 어려움은 획일화를 탈피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치러야 하는 입장료다.

다양성은 우리에게 유연성을 요구한다. 다양성의 향유는 우리 모두가 기성복처럼 널리 팔리는 통념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범주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으려면, 데이터의 세계에서 재생산되는 범주에 대해 날카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범주로 개인을 치환하여 가치 판단을 하는 풍토가 만연한다면 성별,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렵다. 누군가의 단편적인 특성 하나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재단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과거의 편견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이 우리 인류에게 바람직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기계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의 디자인을 통해서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본주의적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인간에게 학습과 배움은 과거를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실수를 극복하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 그것이 인간의 학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절실히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름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다름과 공존하는 것은 노력을 요한다. 내가 알고 있던 남성과 여성,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세계관을 깨고 나오는 일이다. 나의 기준이 실패했음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음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재재를 불러

마땅하다.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까닭이다.

우리는 지금 범주의 평균으로 쏠려서 놓쳐 온 많은 것들을 다시 살펴볼, 더없이 좋은 출발점에서 있다. 과거에 생득적 성별, 피부색, 계층 때문에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특정 직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생의 여정이 허락되었더라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을 가졌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어울림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에필로그

사회학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는 귀하다. 이 짧은 다양성 예찬론은 학술적 논문과는 다른 바람으로 쓰인 글이다. 이 글은 간절히 읊조리는 주술서이며, 동시에 용기 내어 털어놓는 자기 고백서다. 개인의 이야기를 공적 영역에서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독자들께서 개인의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공감되는 것 또한 다양성의 영역이라 여기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사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1983년 처음으로 ‘소아 고관절 탈구’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 지금은 치료법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수술의 성공 사례가 없는 희귀 케이스였다. 첫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이 부모님 눈에는 마냥 귀여워 보이셨다고 하셨다. 하지만 사촌 언니와 오빠를 키우시던 이모님께서 당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느끼셨고, 부모님께서서는 당시 막 돌을 지난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 왼쪽 다리가 탈구된 상태였다.

정말 운이 좋게도 당시 영국에서 막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셨던 이석현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의 큰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그렇게 나는 대한민국 첫 소아 고관절 탈구 교정 수술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덕에 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국민에게 걸음걸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한 달만 늦게 걸음마를 시작했거나, 한 달만 늦게 병원에 왔더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보행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기적에 가까운 성공적인 수술에도 불구하고, 나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길이가 약간 다르다. 병원에서는 당시 생후 13개월이었던 나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줬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정중히 장애 판정을 거부하셨다.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장애 판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는 그 분류 때문에 겪어야 할 세상의 편견이 두려우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수술 후 10년 동안 나만 모르던 나의 비밀은 우리 가족, 동네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초등학교 때 나는 한 번도 100m 이상을 달려 본 적이 없다. 이상하게도 체육 시간 혹은 체력강의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의 호출에 달

려가거나 체육 선생님의 심부름을 해야했다. 가족들 어느 누구 하나 내 몸에 있는 수술 흉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또래와 조금 다른 나의 몸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 필자가 수술 받았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왜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 것보다, 노심초사 그 아이를 지켜 준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놀라웠다.

사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아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까지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혹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웠다. 두 번째는 내 경험을 통해 장애를 낭만적인 경험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여러 날과 밤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라고 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빌려 나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애의 유무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의료진과의 만남과 성공적인 수술도 천운이었다. 하지만 나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그저 신은경으로 대해 준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것이 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경험을 스스로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은 신체적 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불편으로 만드는 일상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아닌 장애의 유무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장애라는 이름으로 어린 나를 재단하지 않았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기에 그 물리적 다름을 인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필자는 스스로가 누렸던 행운이 우리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는 사회를 소망한다. 장애뿐 아니라 인종·섹슈얼리티 등 정체성의 ‘다름’이 일상의 제약과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문명의 가치는 그 문명이 구성원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에 달려 있지 않은가.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어울림의 미래를 간절히 염원한다. ✱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소고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의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이 드라마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회전문 지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타인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며 종종 반항언어를 사용하는 이 ‘낮선’ 존재는 이 사회가 우영우에게 어떤 곳인지를 우영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한편에서는 이 드라마가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지극히 예외적인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아무리 이슈가 되어도 장애인의 시선을 취해 볼 상상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우영우의 시선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계기가 판타지 없이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한다.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토록 서로

다양한 특징과 제각기 다른 어려움을 가진 존재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비장애인’의 시선일지 모른다. 내가 수업에서 만난 장애인 학생들은 저마다 너무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종종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차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곤 했다. 그런 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 등장한 김정훈의 존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이 드라마는 불췌 우영우를 향한 시청자들의 공감과 애정이 김정훈을 향해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겠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우영우를 보면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알게 됐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비장애인이 그러하듯이 같은 ‘자폐 스펙트럼’ 안에도 우영우와 김정훈처럼 저마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전혀 다른 특징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양성’이 화두가 될 때마다 사실 나는 일종의 우려나 불안 같은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다양성이라는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름다운 만큼 종종 너무 쉽게 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양성이라는 말이 품는 세계에는 웬지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우영우까지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힘이 세고 의사소통이 힘든 거구

의 김정훈이나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나선 장애인에게, 그 다양성의 세계는 문을 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눈만 뜨면 보이는 수많은 갈등과 적대, 폭력의 차원들을 ‘다양성’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걱정스럽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한다거나 다양성을 포용한다거나 할 때 그 인정과 포용의 주체는 누구이며 대상은 누구인가의 문제는 종종 누락된다. 그러니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인정과 포용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될 위험을 생각하게 되곤 한다.

가족의 다양성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 관련 법과 제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논할 때 종종 언급되는 주제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포괄할 수 있는 다양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논쟁적인 문제다.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떠올리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사람이 동성애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기도 한다. 혼인과 무관한 동거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비혼 동거 관계에 어떤 권리를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피상적일 수 있으며, 이 무수한 갈등과 첨예한 쟁점들

을 직시하기보다는 피해 가게 만들 위험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나 가족에 관해 이야기할 때나 주어져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다양하다는 점이다. 다양성은 인정이나 포용의 차원, 규범이나 지향의 차원이기 이전에 사실의 차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부의 정책이나 법과 제도가 포용하든 포용하지 않든, 편견이나 거부가 줄어들든 줄어들지 않든, 이미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 가족정책과 가족의 다양성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 시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2006년에 처음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는 조금씩 변화해 왔다. 크게 보자면 ‘가족 구성원 내부’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에다 점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더해지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1년의 제4차 기본계획은 가족의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과 함께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4개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각 정책 영역별로 총 11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11개 정책 과제 중 첫 번째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었던 것을 보면, 제4차 기본계획에서 가족의 다양성이 얼마나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과제 역시도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으로 설정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제1차~제4차)

| 회차 | 비전 | 정책 목표 |
|-------------------------|---|--|
| 제1차 기본계획 (2006-2010) |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
| 제2차 기본계획 (2011-2015)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
|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 |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
| 제4차 기본계획 (2021-2025) |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다양성 인정 •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

출처: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계획(제1차~제4차)에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재구성함

이처럼 제4차 기본계획이 가족의 다양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이전까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양대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사실상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2006년부터 가족의 다양성은 얼마나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반영되었는가와는 별개로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전제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2006년에 발표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도 가족 정책 추진 배경으로 ‘가족의 변화’라는 요소를 꼽았으며, 가족의 규모와 형태는 물론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기본계획 수립의 출발점으로 다루고 있었다. 실은 건강가정기본계획만이 아니라 여러 논쟁 끝에 2003년 1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2월 9일 제정된 배경에도 ‘가족의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잠시 접어 두고 보자면, 가족의 다양성이란 규범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어떤 지표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제도나 정책이 얼마나 인

정하거나 얼마나 포용하는가와 무관하게 가족은 이미 다양하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리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던 그 가족, 이른바 ‘정상 가족’이라고 간주되는 가족의 모습 자체가 역사적으로 지극히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던 모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순애 씨, 향지 씨, 정자 씨 이야기

순애 씨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6남매의 외딸로 태어났다. 사실 순애 씨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아홉 명이었지만 그중 셋이 죽어 여섯이 남았다. 순애 씨는 어렸을 적부터 형제 많은 대가족이 싫었다. 어머니가 일곱 번째 아들을 해산했을 때, 순애 씨는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어머니는 돼지야?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왜 자꾸 아기만 낳는 거야. 개돼지나 그렇게 많이 낳지, 사람이 이렇게 낳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다. 순애 씨는 스물세 살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고, 둘째를 낳은 후 조산원을 찾아가 아이를 안 낳게 해 달라고 애원한 끝에 자궁에 금고리(링)를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염증이 생겼고, 금고리를 제거한 자궁에 옥도정기(소독에 쓰이는 약)를 발랐다고 했다. 다시 심한 염증을 앓고 오래 아파 몸이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순애 씨는 자식을 둘만 낳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다. 나중에 가족계획 사업에서 홍보하는 피임법을 알게 된 후 진작 편리하고 안전한 피임법이 보급되지 않은 것

에 원망스런 마음이 일었다. 하지만 일찌감치 자식을 낳아 기른 순애 씨는 부업도 하고 교회 봉사 활동도 하면서 단란한 네 식구의 삶에서 행복을 느꼈다.

향지 씨는 2남 5녀 중 셋째 딸이었다. 1967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갖 결혼한 부부는 경제적 기반이 없어 시가에서 살기 시작했다. 향지 씨 언니는 딸 넷을 연달아 낳은 후 아들 둘을 더 낳아 힘들게 살고 있었다. 고향 집 동네에서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흔한 일이었다. 향지 씨는 아이 여섯을 낳고 기르느라 힘겨운 언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다. 향지 씨 부부에게 큰돈은 필수품이었다. 부부는 착실하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 시집 살이 반년 만에 분가를 할 수 있었다. 이듬해가 되자 향지 씨 부부는 아이를 가지기로 했다. 1월에 임신해서 더위를 넘긴 가을에 아이를 낳기로 의논한 후 계획대로 10월에 딸을 낳았다. 첫아이가 젖을 떼고 돌을 넘길 무렵 둘째를 계획했고, 이듬해 7월에 아들을 낳았다. 두 남매를 낳고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지만 계획과 달리 향지 씨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됐다. 번민으로 밤을 지새 향지 씨는 결국 “치밀어 오르는 오염을” 삼키며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을 했다.

정자 씨는 농촌 마을의 8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가난한 살림에

겨우겨우 중학교까지만 다닌 정자 씨는 스물세 살에 7남매의 장남과 결혼했다. 남편도 형제 많은 가난한 집 장남 처지라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쳤고, 두고두고 대학에 못 간 것을 한탄했다. 결혼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정자 씨는 줄줄이 딸린 시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시동생들은 삶에 불평이 가득했다. 십년 넘게 시집살이를 한 끝에 분가를 하게 되면서 정자 씨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부모와 시동생 뒷바라지에서 겨우 벗어나 두 딸과 부부의 오붓한 살림을 꾸렸다. 아이가 둘이라 방 한 칸 전세면 족했고, 남편의 봉급이 넉넉하지 않아도 알뜰하게 아끼고 모아서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딸은 피아노도 배울 수 있었고, 일요일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다녔다. 착실하게 살림해서 몇 년이 지나면 집도 사고 살림도 더 늘어날 거라는 희망에 네 식구의 단란한 삶은 흡족하기만 했다.¹⁾

1) 손애 씨, 향지 씨, 정자 씨의 이야기는 모두 1970년대 초 월간『가정의 빛』에 실린 수기를 바탕으로 한다. 자세한 출처는 동일한 수기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문헌을 참조.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파주: 창비. 조은주. (2021). 발전국가와 젠더—통치의 성별화, 성별화된 주체화. 역사비평. 134, 146-173.>

우리가 알던 그 가족

통계청에서 처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작한 1963년에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63%였고, 일용직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는 20%도 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960년대의 한국이 전형적인 농업 사회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 간단한 통계 수치는 우리가 알던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이 실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생겨난 것이고 지극히 짧은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해 준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breadwinner)’으로서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하고, 아버지가 벌어들인 생계비로 어머니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며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의 가족은 이념형(ideal type)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겨우 50년 전, 한두 세대 전에야 시작된 모델일 뿐이다.

농업 사회에서 자녀는 일손이자 자산이며 노후를 의지할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 순애 씨가 올면서 “어머니는 돼

지야?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왜 자꾸 아기만 낳는 거야. 개돼지나 그렇게 많이 낳지, 사람이 이렇게 낳을 수 있어요?”라고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순애 씨의 어머니가 자식을 아홉이나 낳았던 것은 순애 씨 어머니가 정말로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근대적 피임술이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피임술의 보급이 곧바로 피임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사람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른 이유는 무식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식이야말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손이자 자산이며 보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자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성인이 되어 가족경제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는 장기간에 걸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부모가 쏟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자녀가 성인기에 살아갈 삶을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빈곤한 농촌 가족의 딸들이 결혼하여 도시 임금노동자 가족의 주부가 되면서, 자식이 생기면 낳아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와 달리 계획하고 피임해서 자녀의 출산과 자녀의 수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순애 씨와 향지 씨, 정자 씨의 이야기는 농촌 사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사회의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뒤바뀌는 전형적 서사를 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가족’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가진 ‘가족’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순애 씨와 향지 씨, 정자 씨가 원한 삶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삶이었다. 이들에게 이전 시대의 가족은 자신을 움아매던 전통적인 삶의 표상이었다. 그 가족은 자기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전통의 세계, 궁핍한 살림에 근대적 교육의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세계, 임신과 출산이 숙명에 속하던 세계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른 한편 순애 씨와 향지 씨, 정자 씨가 원했던 삶도 역시 ‘가족’으로 형상화되었다. 자기 힘으로 성취해 내는 삶, 숙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상하고 계획해서 실현하는 삶,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고 발전해 가는 삶을 순애 씨와 향지 씨, 정자 씨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순애 씨가 자궁에 금고리를 넣은 것도, 향지 씨가 눈물을 삼키며 임신중절을 했던 것도, 그들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그 ‘가족’ 때문이다.

■ 민수, 은혜, 현지, 성호 이야기²⁾

현장 연구 과정에서 민수와 은혜를 처음 만났을 때, 둘은 한국식의 세는 나이로 각기 스무 살과 열여덟 살이었다. 민수와 은혜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또라이라는 걸” 알아봤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재판관을 받고 민수는 구치소로, 은혜는 심사원으로 들어갔다. 은혜가 민수 있는 곳을 수소문해 인천구치소로 편지를 보내면서 둘은 사귀기 시작했다. 둘이 사귀 지는 꽤 되었지만, 민수가 구치소에 다녀왔기 때문에 실제로 만난 기간은 길지 않았다. 민수는 소년원과 구치소를 여덟 번이나 다녀왔고,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 자퇴했다.

나와 처음 만난 날은 마침 민수가 출소한 다음 날이기도 했다. 민수는 이제 정말 착실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고, 도난당한 핸드폰을 팔아서 한달에 500만 원

2) 민수, 은혜, 현지, 성호는 모두 가명이다.

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성인이 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 거라고 했다. 게다가 집행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큰일 난다고도 했다. 민수는 소년원과 구치소에서 자동차 정비와 미용, 제빵,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컴퓨터 활용까지 자격증을 5개나 땀다고 자랑도 했다. 1년 전,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고 했다. 은혜도 중학교를 “짚렸다가”(유예) 다시 복학해서 간신히 졸업한 상태였다. 다음 해에 고등학교에 갈 거라고 했다.

고등학교를 왜 그만뒀냐고 물었을 때, 민수는 “가정사 때문”이라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고 각기 다른 사람과 재혼한 후 머릿속이 혼돈스러웠다고 했다. 민수는 출소해서 지낼 곳이 없었다.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각자 자기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방을 구하는 사이, 통장을 발견한 아버지가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갔다. 키워 준 값으로 알라고 했다고, 민수가 말했다. 민수는 어른 중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빼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부모가 이혼한 건 은혜도 마찬가지였다. 은혜는 다른 도시의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어머니랑 살게 된 후로 훨씬 더 좋다고 했다. 아무튼 둘은 민수가 출소한 직후 여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물론 둘의 사이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나중에 다시 만난 은혜는 민수에 대한 험담을 한참 늘어놓았다. 비슷한 일은 비슷한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 두는 아이들은 그 사진의 주인공을 자주 바꿨다.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많이 겪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가족 바깥의 누군가와 더 나은 관계를 자꾸 꿈꿨다. 현지도 그런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현지는 네 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후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어린 시절부터 막내 삼촌에게 셀 수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 현지의 첫 가출은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 후로도 가출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가출한 현지는 종종 홍대 앞에 갔다. 홍대 앞에는 밤새도록 공연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매매를 해서 돈이 생기면 현지는 홍대 앞으로 가서 음료수를 수십 캔 사서 공연하는 팀에게 가져다주었다. 음료수를 받은 공연 팀 멤버들이 자기를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게 좋았다. 다정한 타인의 존재는 그토록 사무치게 필요한 것이었다.

순애 씨와 향지 씨, 정자 씨가 꿈꾼 삶은 구체적이었고 저마다 엇비슷했다. 바꿔 말하면 순애 씨와 향지 씨, 정자 씨는 꿈꿀 수 있는 전형적

인 삶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민수나 은혜나 현지가 바라는 삶에는 구체성이 없었다. 민수나 은혜나 현지는 꿈꿀 수 있는 전형적인 삶이 부재한 시대의 존재들이다. 얼핏 보면 민수나 은혜, 현지 모두 이미 특이한 사례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꿈꿀 수 있는 전형적인 삶이 부재한 시대를 사는 것이 이혼한 부모의 자녀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만은 아니기도 하다.

다른 현장 연구에서 만난 성호는 이른바 중산층에 속하는 가족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성장한 아이였다. 어머니는 성호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만나는 친구들, 공부, 학업 성적에 두루 관심을 가졌다. 성호도 어머니의 관심을 잘 알고, 어머니의 당부를 큰 반발 없이 따르는 아이였다.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바람에 따라 스마트폰 없이 지냈고, 거기에 크게 불만을 갖지도 않았으며,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사용했다. 성적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성호는 아주 ‘정상적이고’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 성호가 나에게 “죽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잠자코 듣기만 했다. 죽고 싶다는 성호의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아무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성호는 죽고 싶다고 했다. 성호를 여러

해에 걸쳐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무표정하게 때로는 조금 웃으면서 자기는 스무 살이 되면 죽을 거라고 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호가 죽고 싶은 이유로 얘기한 것은 자신이 성인기의 삶을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흔하고 뻘한 삶,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언급한 적은 없으니 성호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그 삶의 궤적에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명백한 것은 성호가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느낀 그 흔하고 뻘한 평범한 삶이라는 게 실제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순애 씨와 향지 씨와 정자 씨가 꿈꿨던 삶, 그 남편들의 삶,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은퇴해서 다정하게 늙어 가는 삶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삼포 세대’가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의 등장을 알리고 있었다는 사실, 새로운 세대의 불안이 가족 형성의 통상적 단계로 표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 가족은 어떻게 변해 갈까

2020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5.8%에 달했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결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비율이 젊은 연령대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10대와 20대 응답자 중 결혼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70%가 넘었다. 이혼에 대해서도 비슷했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게 더 좋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0%에 육박했고, 10대와 20대에서는 80%가 넘었다. 재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해야 한다거나 해도 좋다고 답했다. 10대와 20대에서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10%도 되지 않았다.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 계 ¹⁾ | 결혼 | | | 이혼 | | | 재혼 | | |
|--------|-----------------|---------------------|-----------------|-------------------------|-------------------------|---------------------|------------------|---------------------|-----------------|-------------------------|
| | | 해야 한다 ²⁾ |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하지 말아야 한다 ³⁾ | 하지 말아야 한다 ⁴⁾ |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 해야 한다 ²⁾ |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하지 말아야 한다 ³⁾ |
| 전체 | 100.0 | 51.2 | 41.4 | 4.4 | 30.2 | 48.4 | 16.8 | 8.4 | 64.9 | 17.3 |
| 남자 | 100.0 | 58.2 | 35.4 | 3.1 | 34.8 | 45.4 | 14.3 | 11.0 | 65.6 | 13.1 |
| 여자 | 100.0 | 44.4 | 47.3 | 5.6 | 25.7 | 51.2 | 19.2 | 5.9 | 64.2 | 21.4 |
| 13~19세 | 100.0 | 32.8 | 54.1 | 6.6 | 15.8 | 50.6 | 20.5 | 3.4 | 68.0 | 8.1 |
| 20~29세 | 100.0 | 35.4 | 52.0 | 8.1 | 13.8 | 55.9 | 24.2 | 4.7 | 76.0 | 7.8 |
| 30~39세 | 100.0 | 42.2 | 49.7 | 4.5 | 22.4 | 55.4 | 18.5 | 6.0 | 73.1 | 11.8 |
| 40~49세 | 100.0 | 44.1 | 49.3 | 4.2 | 24.0 | 56.9 | 16.3 | 6.1 | 69.9 | 17.4 |
| 50~59세 | 100.0 | 55.3 | 39.8 | 3.2 | 31.9 | 49.5 | 15.6 | 9.0 | 62.3 | 21.3 |
| 60세 이상 | 100.0 | 72.7 | 22.5 | 2.5 | 51.3 | 32.5 | 11.8 | 14.5 | 51.3 | 25.4 |

출처: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주: 1) 각 항목별로 '잘 모르겠다' 포함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

결혼과 동거, 자녀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의 양상은 뚜렷이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가까웠고,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76.1%, 78.5%가 혼인과 무관한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10대와 20대의 응답자는 38% 이상이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 연령대를 합치면 32.0%였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 무려 60.6%, 52.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결혼·동거·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 문항 | 구분 | 계 | 동의 |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 반대 | 약간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 전체 | 100.0 | 59.7 | 16.1 | 43.6 | 40.3 | 24.3 | 16.0 |
| | 남자 | 100.0 | 62.4 | 16.9 | 45.5 | 37.6 | 23.3 | 14.3 |
| | 여자 | 100.0 | 57.0 | 15.3 | 41.7 | 43.0 | 25.3 | 17.8 |
| | 13-19세 | 100.0 | 76.1 | 26.9 | 49.2 | 23.9 | 17.4 | 6.5 |
| | 20-29세 | 100.0 | 78.5 | 28.2 | 50.4 | 21.5 | 15.7 | 5.7 |
| | 30-39세 | 100.0 | 74.2 | 24.2 | 50.0 | 25.8 | 17.3 | 8.5 |
| | 40-49세 | 100.0 | 66.5 | 16.4 | 50.1 | 33.5 | 22.1 | 11.3 |
| | 50-59세 | 100.0 | 50.4 | 9.9 | 40.5 | 49.6 | 29.6 | 20.1 |
| 60세 이상 | 100.0 | 37.6 | 5.6 | 32.0 | 62.4 | 33.0 | 29.4 | |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전체 | 100.0 | 30.7 | 7.2 | 23.4 | 69.3 | 36.2 | 33.1 |
| | 남자 | 100.0 | 32.6 | 7.4 | 25.1 | 67.4 | 36.6 | 30.8 |
| | 여자 | 100.0 | 28.8 | 7.0 | 21.8 | 71.2 | 35.8 | 35.4 |
| | 13-19세 | 100.0 | 38.0 | 11.6 | 26.4 | 62.0 | 39.1 | 22.9 |
| | 20-29세 | 100.0 | 38.1 | 10.5 | 27.5 | 61.9 | 37.9 | 24.0 |
| | 30-39세 | 100.0 | 37.1 | 10.9 | 26.2 | 62.9 | 36.9 | 26.0 |
| | 40-49세 | 100.0 | 33.3 | 7.4 | 25.9 | 66.7 | 36.4 | 30.4 |
| | 50-59세 | 100.0 | 25.0 | 4.7 | 20.3 | 75.0 | 34.7 | 40.3 |
| 60세 이상 | 100.0 | 22.8 | 3.6 | 19.1 | 77.2 | 34.9 | 42.3 | |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전체 | 100.0 | 68.0 | 25.5 | 42.6 | 32.0 | 22.1 | 9.8 |
| | 남자 | 100.0 | 72.7 | 27.0 | 45.8 | 27.3 | 20.0 | 7.2 |
| | 여자 | 100.0 | 63.4 | 24.0 | 39.5 | 36.6 | 24.1 | 12.4 |
| | 13-19세 | 100.0 | 39.4 | 7.7 | 31.7 | 60.6 | 37.3 | 23.3 |
| | 20-29세 | 100.0 | 47.5 | 10.8 | 36.7 | 52.5 | 32.0 | 20.5 |
| | 30-39세 | 100.0 | 59.0 | 14.8 | 44.2 | 41.0 | 28.8 | 12.2 |
| | 40-49세 | 100.0 | 65.4 | 18.1 | 47.3 | 34.6 | 26.3 | 8.3 |
| | 50-59세 | 100.0 | 77.9 | 29.6 | 48.3 | 22.1 | 16.8 | 5.3 |
| 60세 이상 | 100.0 | 87.9 | 47.3 | 40.6 | 12.1 | 9.1 | 3.0 | |

출처: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요약해 보자면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설령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할 수도 있고 어찌면 이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혼 후 다시 재혼하는 것에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결혼과 무관하게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며,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했다고 해서 꼭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변화의 방향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젊은 세대일수록 일관된 추세로 이전의 가족과 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폭이나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혼인 외 동거 관계는 늘어날 것이며, 혼인 외 출산이나 무자녀 가족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친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모델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 가족과 정상성

근대 사회에서 가족은 정상화(normalization)를 전개하는 핵심적인 제도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 학교에 가고 군대에 가고 노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족이고, 학교를 떠난 학생이 돌아가는 곳, 군대를 벗어난 군인이 돌아가는 곳, 일터에서 나온 노동자가 돌아가는 곳도 가족이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을 길러 내는 것도 가족이고,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삶을 다시 정상의 범주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실천이 벌어지는 곳도 가족이다. 가족은 정상성을 구축하는 일차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제였다.

그러나 가족과 정상성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 여전히 가족은 견고하고 굳건해 보인다. 정상 가족의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가족의 파괴나 해체로 여기는 사람들의 우려나 불안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강하게 고수하려는 완고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나 불안과 무관하게, 가족 내 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 때문이든 신자유주의 질서에 의해서든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때문이다, 실은 바로 그 모든 힘들에 의해 정상 가족의 규범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알던 그 가족의 모델은 이제 새로운 계급 구분의 표식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대 가족이 출현하던 시점부터 이미 ‘정상적인’ 가족이란 계급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그 가족이 부서져 나가는 방향과 속도는 한층 더 계급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더 이상 가족에 의지할 수 없게 된 개인들은 노동시장과 복지 제도, 교육제도, 각종 의료 기관과 상담 센터 등에 한층 더 제도적으로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각종 법과 제도에서 전제하고 있는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가족 정의는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특히 사별하거나 이혼한 노인들의 동거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많은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 맡겨지고 있으며, 반대로 부양의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는 직계 혈족이 부모나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제3조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협소한 가족의 법적 정의와 가족 범위 규정이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 정책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삶이 더욱 더 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현실은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충분히 타당하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더욱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가족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잔여적 범주를 포함하고 취약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로 흐르게 된다면,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위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단지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경유하여 이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더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족을 둘러싼 권리의 문제를 통해 권리 개념

자체를 보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족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동과 그 결과가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효과를 더욱 복잡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신은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사회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마치고 콜롬비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료사회학, 역사사회학, 사회 연결망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현재 『한국사회』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디지털인문센터 부센터장,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생산과 재생산의 정치에 주목하면서 통치성의 맥락에서 가족 및 인구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통치-과학의 결합과 지식의 사회적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서로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2018), 『비판사회이론』(공저)(2022), 『경제학들의 귀환』(공저)(2022) 등이 있다.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명연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광
-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서 가능한 연극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순우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 12호 있는 그대로 살어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어장의 정자(正字) 재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꿰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신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 16호 생활튼: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철아
-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확립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 19호 성평등, 교실에 달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고운
- 20호 사회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_ 이해영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_ 이의현

21호

세계의 끝 윈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_ 백창화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_ 안병일

22호

Behind the scenes:
2021 고려대학교 다양성 조사와 보고 _ 김재연
다양성(Diversity)으로의 변화,
조직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라 _ 양윤재

23호

조선 시대 궁중 회화의 다양성:
조선 후기 궁중의 그림 병풍과 이국 취미 _ 윤민용
시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세 가지 시선 _ 신수진

24호

1부 - 강연: D&I의 심리학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이
역량인 이유에 대해 _ 김경일
2부 - 대담: 음악에서의 다양성 _ 진은숙, 조은아

25호

4차 산업혁명의 요람에서 만난 다양성 _ 김서경
자기다음과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공감 교육 _
박보혜, 서현선, 신원상

26호

영시(英詩)가 전하는 다양성의 가치 _ 장성현
러시아 문학, 다양성으로부터의 가치 _ 최정현



KU Diversity



<https://www.diversitas.kr>

Diversitas

권호 27호
발행일 2022년 8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